

열린 세상



박원우 편집국장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을 사디즘(sadism)이라고 정의한다. 가혹 또는 학대음란증이라고도 불리는 사디즘은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게 되는 마조히즘(masochism)과 상반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반대적인 성욕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면이기도 하다. 심층심리학자인 S.프로이트는 모든 생리적 기능에는 사디즘이 숨어 있으며 마조히즘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사디즘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성 목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공격적이며 고통을 주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경향을 가리킬 때도 있다. 사디즘과 마조히즘은 인간관계에서도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주로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나타난다.

'n번방' 추악한 집단 사디즘 강력 처벌해야

사디즘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명성을 누리던 귀족 가문의 사드 후작(Marquis de Sade)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사드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과 작위를 물려받은 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했다. 특히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적 실험까지 자행했는데 부활절 사건으로 알려진 가학적인 성적취지는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다. 매춘부를 채찍으로 때리고 몸에 상처를 입히는 폭행을 자행한 것이다. 정신병원에 갇히는 등 풍파를 겪은 사드는 연극과 소설 몇 작품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 역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로 넘쳐났다.

여성성착취 영상 회원 26만명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적취취와 성폭행 영상을 상품화한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일명 '노에'로 불리는 여성들의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했다고 한다. 이들 불법 채팅방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통하고 암호화 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 운영자 조주빈은 수십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금액에 따라 여러 등급의 채팅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채팅방 영상을 보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박사방'을 비롯해 여성들의 성적취취 및 성폭행 영상을 상품화하는 'n번방' 회원 숫자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는 경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어찌 이리 많은 사람들이 어리고 어린 여성들이 고통받는 광경을 돈까지 쥐 가면서 구경한다는 것인지 사회의 아만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우울하기만 하다. 국민들의 분노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까지 200만명이 이들 불법 채팅방에 돈을 주고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유료회원들이 'n번방'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유료회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지난 27일 새벽 서울 영등대에서 40대 남성이 박사방 회원이라고 밝힌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여수에서 'n번방'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음독 후 경찰에 자수하는 일도 있었다. 'n번방'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n번방'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집단적 사디즘이 상업화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법체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심 선고 유형과 형량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17년 50.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17년 33.7%)가 징역형, 14.4%(17년 14.4%)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폭행과 성적취취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 동조자들 명단 공개하길

또 'n번방' 회원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단순한 가담자라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비를 납부한 것은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것이나 다름없다.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과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볼 때 공범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고



송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

"아무리 돈이 없고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하고 욕심하고 헛갈리면 안 되지." 얼마 전 종영된 TV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주인공 김사부의 대사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 동안 머릿속을 맴돌 만큼 긴 여운을 주었고, 꽤나 의미심장하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양심

게 받아들여졌다. 순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양심과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양심과 타협하면서까지 위법부당한 일들을 계속 해서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면에는 대부분 욕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청소년 보호·원산지표시·의약품·식품·공공위생 등 시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6개 직무분야에 대해서 위법사항 등을 적발·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간의 수사 사례에서 개인적 욕심에 눈이 멀어 양심과 타협하는 행위들을 슬 하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독성 있는 화학물질을 하천에 유출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문제는 양심과 타협하고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들이 한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17년 A업체가 풍양정전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유출한 사례다. A업체에서 화학물질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무단방류한 화학물질이 물고기 떼죽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까지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양심과 타협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를 낳는 만큼 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양심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답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남의 물건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존경심이 우러나기도 한다. 개인생활이나 기업활동 모두 경제적 윤택을 목표로 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유혹이 늘 손을 내밀기 마련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욕심 없는 사람 또한 없다. 다만 법과 양심 앞에서 욕심이라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가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에 양심과 타협하지 말자. 비록 수입이 없어 먹고사는 것이 막막할지언정 절대로 양심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

특지광장

학교폭력,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문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빚어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폭력을 중재해줘야 하는 어른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나서 중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재자가 피해자의 입장이 돼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 단순한 훈계와 호통으로 눈에 보이는 폭력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행해지는 괴롭힘까지 근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교폭력을 자라면서 겪는 성장통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어른들이 있다. 피해 학생들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며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도경찰서 의신파출소 이채은

4·15 총선, 공정하게 치러져야

오는 4월 15일(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광주에서는 8선거구에서 8명의 국회의원과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합평군수 보궐선거와 여수시나 선거구, 순천시 사 선거구, 함평군 가 선거구 등 3명의 시군 의회 의원 선정하는 등 총 22명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인만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등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 이상이면 누

구나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해야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행사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의무다. 일부 부정선거를 유도하는 금품수수, 향음 제공 등으로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이 없으면 선거는 깨끗해질 수 없다.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거풍토가 자리 잡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유권자의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길 바란다.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 김주영

사설

광주형일자리 성공 누가 발목 잡는가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행보에 대해 제동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임원진 자격 논란에 이어 최근 노동계 협약 파기 압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적극 응원해도 부족할 판에 기회만 있으면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의 '합의파'가 있을 경우 주주로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

주사와 노동계가 당초 합의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를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했던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책임자로 협정서를 이행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소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관과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하고 외부의 간섭과 요구에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당초에 약속한 투자조건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일자리 사업이다. 자신들의 잇속에 맞지 않는다고 뒤늦게 협의를 파기하고 흡입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은 성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노동계의 동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일부 언론의 자체도 당부한다.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추적 엄단해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수법에 심각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장막이란 은의성에 숨어 진행되는 각종 범죄와 해악이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룰 평화도, 사회의 안녕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추적해 관련자를 전원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아동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손쉽게 풀려나는 지금의 법체계로는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법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올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음란물 못 지 않은 사이버 악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악플 또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공공질서 해악 범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기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그 근원적인 고리를 뽑아야 한다. 정치권도 근본적 법·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 방조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등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 악질적 범죄인 디지털성범죄가 조속히 적멸되길 바란다.

상춘객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해야

기시수첩

꽃이 만발하는 계절 봄이 찾아오면서 전남 지자체에는 긴장이 맴돈다. 물리는 상춘객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을 염려해서다. 전남 지자체는 매년 상춘객으로 인해 많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효과를 포기하면서 축제와 상춘객 방문을 통제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이나라 제2사회부 차장대우

산수유 명소인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는 최근 상춘객들의 방문을 거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제효과만 155억에 달하는 산수유 축제가 취소한 상태다. 영암군도 내달 2일 열리는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취소했고, 상춘객 통제에 나선 상황이다. 유적지는 치단막을 설치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 구립 전통한옥마을과 주요 관광지 에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혹시 모를 방문을 염려해서인지 경찰과 경비업체 등 인력 60명도 투입했다. 완도군도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 29-29일 청산도와 노화 소안, 보길도 등 관광객 승선을 통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잔여일인 내달 4-5일도 관광객 승선을 차단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자 정부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많은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봄의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야외로 떠나는 이들도 있고, 일부 중

교시설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여는 곳도 있다. 클럽과 술집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두어 달 남는 코로나 여파에 심신이 지친 것 또한 사실일 것이고 긴장감 또한 많이 풀렸을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 19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캠페인의 효과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더해져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며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세업자, 그리고 축제와 상춘객을 방문을 거부하는 지자체, 이에 동참해 야외활동을 차단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찌하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이제 일주일 가량 남았다. 이기심은 조금 내려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야 할 때다. 그간 노력해온 사람들의 수고와 허투루 되지 않길 소망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public information.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희철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 김용범 주필 노두호 편집국장 박원우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